

〈利野耆冊〉 小攷(1)

-이본의 성격 및 편찬연대를 중심으로-

김 영 준*

차 례

- | | |
|---------------------|-------------------|
| 1. 들어가는 말 | 4. 編著者の 交友關係 및 身分 |
| 2. 異本の 性格과 體裁 | 5. 맺음말 |
| 3. 編纂年代 및 編著者の 生沒年代 | |

1. 들어가는 말

〈利野耆冊〉은 아직 학계에 널리 소개되어 있지 않은 책으로 현재까지 국립도서관본과 고려대본 등 두 종류의 이본이 알려져 있다.¹⁾ 17세기 무렵의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실고 있는 점으로 보아 本書는 상당히 오래된 책으로 판단된다. 모두 80개의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총 收錄 話數의 3/4에 해당하는 60개의 이야기가 순수한 끝계담(소화류 이야기)으로 되어 있다. 소화류 이야기들은 한데 모아서 집중적으로 수록하는 형식을 취했으며 소화류 이야기들 앞에는 따로 序文을 붙여서 역사적으로 골계에 능하였던 중국과 한국의 이름있는 인물들을 사적으로 개관하였다. 이 점은 본서의 편저

* 기전여자대학 교양과 부교수

1) 이 중에서 고려대본은 원광대 정명기 교수의 도움으로 입수하였다.

자가 소화류 이야기와 비소화류 이야기를 의식적으로 구분하려고 한 사실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본서의 특징적인 점 중의 하나라고 하겠다.²⁾

현전하는 조선시대 소화집 11편 중에서 수록 화수가 70개를 넘는 것들로 는 <태평한화골계전>, <어면순>, <명엽지해>, <어수신화>, <성수패설>, <교수잡사> 등이 있다. 그러나 이것들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모두 많게 는 66화에서 적게는 10화의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³⁾ 이를 고려할 때, (좀 더 상세한 내용 분석과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총 60개의 소화를 싣고 있는 本 <利野齋冊>의 등장은, 순수하게 소화사적인 맥락에서만 살핀다면 그 사적인 의미와 가치가 결코 작지 않으리라고 판단된다. 즉, 本書의 등장은 현재 학계에서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 조선시대 소화자료의 외연의 폭을 한층 넓혀주었다는 점에서 그 사적인 의미와 가치가 자못 클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 소화의 변천과정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모종의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利野齋冊>의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주로 本書의 體制 및 異本の 성격, 성립연대와 편저자의 사회적 신분 추정 등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었다.

2. 異本の 性格과 體裁

현전하는 이본 중 국립도서관본은 李在暎藏本을 저본으로 하여 昭和十六年(1941년) 十一月에 謄寫된 본으로 序·跋文 없는 날권으로 된 64張本이다.

2) 고려시대 李齊賢의 <櫟翁稗說>이 이와 흡사한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櫟翁稗說> 이후 이와 같은 형식을 가진 패설집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3) 민속학자료간행회간본 <고금소총>을 토대로 이야기하면, 현전하는 소화집 11편 중에서 80편 이상의 소화를 싣고 있는 소화집은 총 6종뿐-<태평한화골계전>에 145화, <어면순>에 88화, <명엽지해>에 80화, <어수신화>에 130편, <성수패설>에 80편, <교수잡사>에 86편-이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소화집들에는, <촌담해이>에 10화, <속어면순>에 32화, <파수록>에 63화, <진담록>에 49화, <기문>에 66화의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시종 동일한 글자체로 매 쪽 24字 10줄씩 기록하였다. 전체적으로 體制가 상당히 정비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앞 부분에는 주로 야담류의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실었고 이야기마다 제목을 붙여놓았다. 뒷 부분에는 소화류의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수록해놓았는데 소화류의 이야기들 앞에는 특별한 제목을 붙이지 않고 붓 대롱으로 구분 표시만 해두었다. 이 책의 母本인 李在暎藏本은 현재 발견되고 있지 않다.

고려대본은 52張本 날권으로 역시 序·跋文이 붙어 있지 않다. 책의 말미에 “庚午市肆(?)買得”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庚午年 이전에 성립된 本이다. 위의 庚午年은 이 책 편찬 후의 庚午年을 의미할 것이므로 1930년, 1870년, 1810년, 1750년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해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⁴⁾ 국립도서관 본에 비해서 體制가 상당히 산만하고 중간 중간에 글씨체가 종종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야담류의 이야기들을 앞 부분에다 몇 개 수록해놓은 후 이어서 소화류의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실었으며 다시 그 뒤에다 나머지의 야담류 이야기들을 수록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또 야담류의 이야기들 가운데 반 수 가량이 제목이 붙지 않은 상태로 소개되고 있는 점도 국립도서관본과 차이가 나는 점이다.⁵⁾

양본은 이야기의 구체적인 내용상에 있어서는 내용의 변개라든지 이야기의 첨삭과 같은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예컨대 昨日過客聲音↔過客聲音⁶⁾에서와 같이 몇 글자가 빠져 있는 차이거나 드문 예이기는 하지만 “客怪之必辱我也 少焉 果持酒而來”⁷⁾와 같은 구절이 송두리째 빠진 것과 같은, 다분히 비의도적인 謄寫上的 실수이거나, 혹은 不知東西↔不到東西⁸⁾, 咫尺↔七尺⁹⁾, 命奴↔命好¹⁰⁾, 作行失路↔作行實路¹¹⁾...에서

4) 책 중간에 “帖政元年 太歲正月”이라고 누군가 낙서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혹 이것이 어떤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나 아직 자세히 조사할 수 없었다.

5) “申榮傳”을 제외하고는 국립도서관본에서 ‘傳’의 명칭을 가진 것들은 모두 제목을 붙여 수록하였고 반면에 국립도서관본에서 ‘傳’의 명칭을 갖지 않은 것들-‘小史’의 명칭을 가진 것들이나 기타-은 제목 없이 수록하였다.

6) <堪輿奇應傳>

7) 소화류 39화

4 한국문학논총 제 26 집

보는 바와 같은 간단한 표기상의 실수에 가까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또 총 이야기 수에 있어서도 완전히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양본은 모두 비교적 충실한 轉寫本이란 성질을 갖는다.

다만 양본 사이에 존재하는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體制面에서의 차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국립도서관본은 상당히 정비된 體制를 지니고 있는 반면 고려대본은 상당히 산만한 體制를 보여준다. 이를 도표를 통해서 제시해보이면 다음과 같다.

국립도서관본	중심인물	시 기	고려대본	시 기
1. 洪相國傳	洪彦弼(1476-1549)	15C-16C	1. 洪相國傳	15C-16C
2. 張順孫傳	張順孫(1453-1534)	15C-16C	2. 張順孫傳	15C-16C
3. 孫舜孝傳	孫舜孝(1427-1497)	15C	20. (宰相狂蕩)	16C-17C
4. 安尙書傳	安汝式(?) 萬曆(1573-1620)末	16C-17C	①	16C-17C
5. 蔣都令傳	蔣都令(中宗-明宗)	16C	②	" "
6. 李道令傳	李道令(崇禎丙子十月(1636))	17C	③	" "
7. 崔文潑傳	崔文潑(?)	17C	④	16C-17C
8. 白居易傳	白居易(國朝中葉人)	16C?	⑤	" "
9. 堪輿奇應傳	長湍李生員 <萬曆年中(1573-1620)>	16C-17C	⑥	" "
10. 李內翰小史	李 嶸(1560-1582)	16C	⑦	17C
11. 李相國小史	李廷龜(1564-1635)	16C-17C	⑧	" "
12. 洪南原小史	洪柱一(1604-1662)	17C	⑨	" "
13. 尹尙書小史	尹堦(1622-1692)	17C	⑩	" "
14. 金監司小史	金構(1649-1704)	17C	⑪	" "
15. 申焚傳	申焚(?), 其子伯周(1646-?)	17C	⑫	" "
16. 河西先生小史	金麟厚(1510-1560)	16C	⑬	" "
17. 車滄洲小史	車雲輅(1559-?)	16C-17C?	⑭	17C
18. 南內翰小史	南省身(1567-1623)	16C-17C	⑮	" "
19. 半鄉半京	權擘(1520-1593)	16C	⑯	17C
20. 宰相狂蕩	沈喜壽(1548-1622)	16C-17C	⑰	" "
①	李恒福(1556-1618)	16C-17C	⑱	" "
②	" "	" "	⑲	" "
③	" "	" "	⑳	" "

- 8) 소화류 5화
- 9) 소화류 6화
- 10) 소화류 15화
- 11) 소화류 39화

④	趙緯韓(1567-1649)	16C-17C	㉑	16C-17C?
⑤	" "	" "	㉒	
⑥	" "	" "	㉓	
⑦	南老星(1603-1667)	17C	㉔	
⑧	" "	" "	㉕	
⑨	" "	" "	㉖	
⑩	" "	" "	㉗	
⑪	" "	" "	㉘	
⑫	" "	" "	㉙	
⑬	" "	" "	㉚	
⑭	李穆 (1589-?)	17C	㉛	
⑮	" "	" "	㉜	
⑯	裴幼華(1611-1673)	17C	㉝	
⑰	" "	" "	㉞	
⑱	" "	" "	㉟	
⑲	" "	" "	㊱	
㉑	邊應璧(1562-?)	16C-17C?	㊲	
㉒	原州 朴生		㊳	
㉓	一儒生		㊴	18C-19C
㉔	一宰相		㊵	17C
㉕	一士人		㊶	" "
㉖	一儒生		㊷	" "
㉗	一座首		㊸	" "
㉘	一人		㊹	" "
㉙	一村女		㊺	" "
㉚	一邑宰		㊻	17C
㉛	一雇工		㊼	17C-18C
㉜	一新嫁女		㊽	17C
㉝	一新婦		㊾	" "
㉞	一塩商		㊿	" "
㉟	全羅監司 夫人		㊿	17C
㊱	一村女		㊿	17C
㊲	一寡女		㊿	
㊳	幕漢		㊿	17C
㊴	金裨將		㊿	17C
㊵	洪起燮(1776-1831)	18C-19C	㊿	17C
㊶	李壽昱(1630-?)	17C	㊿	15C-16C
㊷	" "	" "	㊿	" "
㊸	" "	" "	㊿	" "
㊹	" "	" "	9. 堪輿奇應傳	16C-17C
㊺	" "	" "	3. 孫舜孝傳	15C

④6	" "	" "	4. 安尙書傳	16C-17C
④7	尹鴻舉	17C	5. 蔣都合傳	16C
④8	巖緝(1635-1710)	17C-18C	6. 李道令傳	17C
④9	金世輔	17C	7. 崔文潑傳	17C
⑤0	" "	" "	10.(李內翰小史)	16C
⑤1	" "	" "	11.(李相國小史)	16C-17C
⑤2	李喜龍(1639-1697)	17C	12.(洪南原小史)	17C
⑤3	南宮鈺(1620-?)	17C	13.(尹尙書小史)	17C
⑤4	一邑宰		14.(金監司小史)	17C
⑤5	閔鼎重(1628-1692)	17C	15.(申燮傳)	17C
⑤6	南宮鈺(1620-?)	17C	16.(河西先生小史)	16C
⑤7	李喜龍(1639-1697)	17C	8. 白居易傳	16C?
⑤8	閔永肩(?)	15C-16C	17.(車滄洲小史)	16C-17C?
⑤9	" "	" "	18.(南內翰小史)	16C-17C
⑥0	" "	" "	19.(半鄉半京)	16C

표 중에서 원 문자로 표시한 숫자는 소화류 이야기를, 원 문자 아닌 숫자로 표시하고 음영처리한 것들은 야담류 이야기를 각각 나타낸다. 또 고려대본의 이야기 중에서 괄호 표시가 있는 것은 원화에 제목이 없음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국립도서관본의 이야기 배열방식을 분석해보면 그것이 나름대로 뚜렷한 편집 원칙에 따른 배열방식임을 볼 수 있다. 수록된 전체의 이야기들을 크게 야담류의 이야기와 소화류의 이야기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가운데 앞쪽에 20개의 야담류의 이야기를 배치하고 뒤쪽에 60개의 소화류의 이야기들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야담류 이야기들은 다시 '傳'의 명칭을 붙인 이야기들과 '小史'란 명칭을 붙인 이야기들, 기타의 명칭을 붙인 이야기들로 구분한 후 순서대로 나열하였다.¹²⁾

이와 같은 질서는 더욱 세부적인 수준에서도 다시금 반복된다. 이것을 '傳'의 이름을 가진 이야기들에 한정해서 고찰해보면 1~3까지는 주로 15세기 무렵의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실었고 4와 5는 16세기 및 16세기~17세

12) 물론 '申燮傳'이라는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커다란 맥락에서 무시해도 좋은-그와 같은 예외의 존재가 전체의 질서를 크게 해상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기에 걸쳐 있는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들, 6과 7은 17세기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주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맨 마지막 8과 9는 補遺의 성격이 짙은 이야기들로서 생존연대가 16세기~17세기에 걸쳐 있는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시 첨가하였다. ‘傳’의 이름이 붙지 않은 ‘小史’ 혹은 기타 명칭을 가진 이야기들의 경우에도 동일한 질서를 보여준다. 즉 10과 11은 16세기~17세기 인물들 이야기이고, 12~15는 17세기 인물들 이야기이며, 16~20의 이야기는 補遺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다시 16세기~17세기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실었다.

소화류 이야기들은 동일인물에 관한 이야기의 집중 배치라는 원칙 하에 이야기를 배치하되 전체 이야기가 대략 ①~㉑, ㉒~㉓, ㉔~㉕과 같이 20여 개씩,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①~㉑은 유명씨 소화를, ㉒~㉓는 무명씨 소화를, 그리고 ㉔~㉕은 다시 유명씨 소화를 실었다. 여기서 유명씨 소화를 앞세우고 무명씨 소화를 뒤세우려 한 편저자의 애초의 의도를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다. 다만 무명씨 소화군 뒤에 재등장하는 ㉔~㉕의 유명씨 소화들은 다시금 補遺의 성격이 짙은 이야기들이라고 하겠다.

한편 무명씨 소화를 제외한 두 부분은 앞서 예시한 ‘이야기의 시대별·인물별 배치 後, 필요에 따라 補遺項 첨가’라고 하는 편집상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진다. 즉 ①~㉑의 경우, ①~⑥은 16세기~17세기의 유명씨 소화를, ⑦~㉑은 17세기의 유명씨 소화를, ㉒은 補遺 소화를 순서에 따라 배치했다. ㉔~㉕의 경우에도 역시 ㉔話의 예외적 경우를 제외한다면¹³⁾ 대체적으로 17세기의 유명씨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실은 후 끝부분에다가 ㉓~㉕의 閔永肩에 대한 3개의 보유 소화를 첨가하였다.

이밖에도 국립도서관본은 야담류 이야기들을 배치할 때 이야기의 성격에 따라 비슷비슷한 이야기끼리 묶어서 배치하는 치밀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20개의 야담류 이야기들 가운데 앞의 네 개의 이야기는 幸相級 유명인물들에 얽힌 일화들을 실었다. 다만 4화는 조선에 망명한 중국의 安尙書의 파란만장한 생애와 異人的 풍모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예외적이다. 5, 6,

13) ㉔話 洪起燮 이야기의 문제는 뒤에 항을 달리하여 자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7화는 모두 仙遊 모티프를 가진 이야기란 점에서 공통된다. 10, 11, 12와 14, 15는 모두 異人이 등장하거나 異人의 풍모를 지닌 사람이 등장하는 이야기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16, 17, 18, 19는 모두 詩鑑 모티프를 가진 이야기들이란 점에서 같다. 이제 위의 논의에서 빠진 것들은 8과 9, 13, 20 등이다. 이 중에서 제8화 <白居秋傳>은 豪俠 모티프를 지닌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세상과 외파로 떨어져 있는 으리으리한 도적굴의 성격이 도적굴이란 사실만 빼면 영락없이 다른 이야기의 仙界와 흡사한 측면을 갖고 있으므로 앞그roup인 仙遊 모티프군의 예외적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9화 <堪輿奇應傳>은 後記에 “地師의 말이 마치 신표를 맞추듯 들어맞고 있다. 比與(?)의 술법이란 과연 이렇듯 귀신같이 들어맞는 것일까? 내가 마침내 그 始終을 기록한 다음 ‘堪輿奇應’이라고 이름하였다.”¹⁴⁾라고 돼 있음으로 보아 地師의 堪輿術을 통한 귀신같은 예언 능력에 작품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3의 <尹尙書小史>도 작품 서두에 “尹尙書堪輿推數”라고 하여 이야기의 초점이 尹尙書의 미래에 대한 예지 능력에 있음을 짐작케 한다. 남들이 흉내내기 어려운, 귀신같은 예지 능력을 가졌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의 ‘異人’의인 풍모’로 보아서 꼭 안될 것은 없다. 그러므로 두 작품은 앞뒤의 異人들의 異人的 풍모를 담고 있는 다른 이야기들과 맥을 같이 하는 얘기로 간주해도 좋을리라고 본다. 20의 <宰相狂蕩>이란 이야기는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과 관련하여 앞의 이야기들처럼 한시에 얽힌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다만 앞의 이야기들에서는 특정인의 詩鑑에 이야기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이 이야기에서는 다소 엉뚱하게도 皮匠의 前知 能力과 沈喜壽의 여색에 빠져 체통을 돌아보지 않는 듯한 행동을 서로 대비시키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皮匠의 前知 能力에다 작품의 초점을 둔듯한 인상이 강하다. 바로 이러한 점이 앞의 이야기들과의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겠다.¹⁵⁾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소 예외적인

14) 地師之言 若合左契 比與之術 果若是神應耶 余遂記其終始 名之以堪輿奇應云 <堪輿奇應傳>

15) 이 점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편저자의 後記 내용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彼賤人 先知此日之相逢耶……斷曰 甚矣 女色之移人也 相國乃文章博學之名宰也

것이기도 하지만 한시를 둘러싼 이야기란 공통점을 중시하게 되면 큰 맥락에서 앞의 얘기들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듯이 국립도서관본은, 결코 후대의 謄寫者의 손으로 쉽게 조작되거나 훗날 내기 어려운, 원 편저자의 강한 편집상의 의지가 책 전반에 걸쳐서 고스란히 간직된 모습을 지니고 있음이 단연 돋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그 體制面에서만 따진다면 고려대본보다는 국립도서관본이 훨씬 원형에 가까운 善本임을 확신해도 좋으리라 보고 본다.

한편 고려대본의 경우, 전체적으로 볼 때 소화류 이야기에 있어서는 국립도서관본과 큰 차이가 발견되고 있지 않으나 야담류 이야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몇 가지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여준다.

먼저 모든 야담류 이야기에 일률적으로 제목이 붙어 있는 국립도서관본과는 달리 고려대본에서는 총 20화 중 9화에만 제목이 붙어 있다. 제목이 있는 이야기들은 모두 ‘傳’의 명칭을 가진 것들 뿐이다. 제목이 붙어 있지 않은 나머지 11화는 ‘申炎傳’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립도서관본에서 ‘傳’의 명칭을 갖지 않은 이야기들에 국한된다.¹⁶⁾ 그러나 국립도서관본의 體制를 설명

仕進之初 尤當謹身而 遇人妾而不能却之 且以大臣之尊 追悼娼妾 對年少名士而說其夢 自不覺爲一世笑資 甚矣 女色之移人也 凡百男子 可不戒哉 楚莊王五霸之一也 絕纒高義 能使蔣雄報德 袁絲豪傑之士也 出給侍妾 亦使從史酬恩 若使楚王袁絲重色妬恚則 蔣雄從史皆死而已 日後崑厄 誰復救之 皮匠以一賤流 能行楚莊袁絲之事 竟得生於死中 人之賢不肖 豈以貴賤而有殊乎 余不爲沈相多之 爲皮工多之” <宰相狂謔>

16) ‘申炎傳’은 원본에서는 원래 제목이 붙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국립도서관본의 경우를 보면 ‘傳’의 명칭을 가진 것들이나 그렇지 않은 것들이나 모두 제목이 붙어 있는 반면, 고려대본의 경우에는 ‘傳’의 명칭을 가진 것들은 제목이 붙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거의 예외 없이 제목이 붙어 있지 않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원본의 모습에 근거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양본은 모두 ‘傳’의 명칭을 가진 것들을 가능한 한 앞쪽에 제목을 붙인 상태로 한데 모아서 수록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런데 고려대본에 보면 ‘申炎傳’ 외에도 ‘白居易傳’이 ‘傳’의 이름을 가진 것이면서도 다른 것들과 달리 취급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그러나 심지어 이러한 경우에서조차도 ‘白居易傳’은 제목이 붙지 않은 다른 것들 가운데서 유독히 자신의 제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원본에서 ‘傳’의 명칭을 가진 것들만이 제목이 붙어 있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며 ‘白居易傳’과는 달리 그 제목을 상실한 ‘申炎傳’은 본래 제목이 없는 이야기였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할 때에도 하나의 예외적 현상에 속했던 ‘申榮傳’에 관한 문제는 여기에서도 역시 예외적인 취급을 하기로 양해를 구하고 여기에서 잠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해볼 필요가 있다. 만일에 국립도서관본의 경우처럼 원본에서도 모든 얘기들에 제목이 붙어 있었다고 한다면 고려대본에서는 무슨 까닭으로 ‘傳’의 명칭을 가진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제목을 붙인 반면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제목을 삭제해야만 했던 것일까? 과연 고려대본은 원본의 모습에 상관없이 문제의 11개의 이야기 제목을 일률적으로 삭제해야 할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일까? 그러나 이것을 설명해줄 수 있는 적절한 대답은 아무래도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러므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오직 원본의 모습이 그러했기 때문이라는 설명방식뿐이다. 그렇다면 국립도서관본에 원본에는 없었던 제목이 붙어 있는 까닭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 원본의 體制上의 결함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후대의 轉寫者가 인위적으로 보완적 차원에서 첨가시킨 결과일 가능성이 많다고 할 것이다.

둘째로 고려대본의 야담류 이야기 배열방식은 앞서 설명했던 국립도서관본의 정연한 편집의 질서를 크게 깨뜨리고 있다. 전체 20개의 이야기 중에서 3개는 골계류 이야기 앞에다 배치하고 나머지 17개는 뒤에다 배치한 불균형이나, 제목이 없는 20화 沈喜壽 이야기를 ‘傳’ 제목이 붙은 얘기들 사이에 끼워넣은 대신에, ‘傳’의 제목을 가진 ‘白居秋傳’은 제목이 없는 얘기들 사이에 끼워넣는 등 편집의 일관성이 크게 깨져 있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傳’ 제목이 붙은 얘기들의 배열 방식에 있어서도 15-16세기 2화, 16-17세기 2화, 15세기 1화, 17세기 1화, 16세기 1화, 17세기 2화, 16세기 1화와 같이 배열함으로써 국립도서관본에서 야담류 및 소화류 이야기들을 배치할 때 일반적인 편집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던 ‘이야기의 시대별·인물별 배치 後, 필요에 따라 補遺項 첨가’라고 하는 편집상의 엄격한 원칙이 심각

것이다. 물론 ‘申榮傳’의 이야기에다 ‘小史’의 명칭 대신 하필 ‘傳’의 명칭을 붙인 까닭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필요로 할 것이나 필자의 견해로는 그의 낮은 관직과 낮은 지명도가 ‘小史’의 명칭을 붙이기에 적절치 않다고 보고 보다 일반적인 명칭인 ‘傳’을 붙이게 된 데서 이런 결과가 생겨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게 훼손되고 있는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이를 보면 고려대본은 그 體制面에서 원형에서 상당히 떨어진 本일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국립도서관본과 고려대본은 그 전체 話數나 내용면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교적 원본에 충실한 轉寫本이란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양본은 體制面에서 상당히 큰 차이점을 보인다. 국립도서관본은 후대의 轉寫者가 함부로 조작하기 어려운 ‘이야기의 시대별·인물별 배치 後, 필요에 따라 補遺項 첨가’라는 엄격한 편집 원리 아래 편술된 本이다. 그런 의미에서 體制가 상당히 흐트러져 있는 고려대본에 비하여 훨씬 원본의 모습에 가까운 이본으로 판단된다. 다만 야담류 이야기에 붙은 제목 문체에 있어서만큼은 국립도서관본보다는 고려대본이 원형에 훨씬 가까운 모습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국립도서관본의 ‘小史’가 붙은 제목이나 기타 ‘傳’의 이름을 갖지 않은 제목들은 후대의 轉寫者가 인위적으로 첨가한 제목일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다.

3. 編纂年代 및 編著者의 生沒年代

<利野耆冊> 전편을 통하여 편저자에 관한 정보나 본서의 편찬연대를 구체적으로 밝혀줄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득이 이를 살피기 위해서는 본문 여기저기에서 산견되는 단편적인 단서와 제반 정황적 증거를 토대로 그것을 추정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먼저, 편저자의 생몰연대 및 본서의 편찬연대 추정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작중 언급들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공의 외가쪽 지손인 盧東萊陽甫가 자세하게 그 내막을 이야기하므로 기록해둔다.¹⁷⁾
- ② 辛卯年 봄에 權弼이 공무차 淸風郡에 갔다. 안의 아들인 天命을 酒瓶院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됨을 기이하게 여겨 방을 함께 사용하였다. 비 때문에 여러 날을 머물게 되자 權에게 앞서와 같은 이야기를 해

17) 公之外裔 盧東萊陽甫 詳言始終故 記之云耳 <孫旻孝傳>

주었다.¹⁸⁾

- ③ 내가 己亥年 여름에 宋子恭의 집에서 洪을 만나 그 얘기를 자세히 들었다. 매우 기이하게 생각하여 마침내 기록해둔다.¹⁹⁾
- ④ 甲戌年 가을에, 가평사람이 산중에서 우연히, 흰 사슴에 올라타 깃털부채를 손에 쥐고 지나가는 이생을 만났다. 그 사람이 '이군 별래 무양한가?' 하고 물으니 '잘 있다'고 대답하였다. 다시 사는 곳을 물었더니 말없이 가는데 그 종적을 알 수 없었다. 그가 신선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⁰⁾
- ⑤ 그 후에 申은 庭試에 장원하여 화려한 관직을 두루 거쳐 벼슬이 정승에 이르렀다. 권은 과거를 폐하고 낙향하여 實地에 힘을 쏟아 세상을 위하는 큰 선비가 되었다. 여러 차례 부르는 어명이 내려 벼슬이 正卿에 이르렀으나 끝내 나아가지 않았다. 申公의 推步는 可謂 신묘하다고 할 만하다.²¹⁾
- ⑥ 辛巳年 여름에 내가 順陵寢郎으로 齋所에 入直할 때다. 인근 선비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최종에 申君의 일을 아주 자세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신군 또한 예전에 이陵의 능관으로 있었는데 入直할 때 우리와 夜話를 나누었다...'²²⁾
- ⑦ 그밖에도 기이한 일들이 적 많았다. 申은 과연 옥잔선생에게서 得道한 것일까? 다만 그가 생을 짧게 마감했던 것은 尸解하여 갔기 때문이 아닐까? 신군은 또 風水術에도 능하여 집 앞 가까운 땅에 卜葬하였는데 그 아들 伯周가 과거에 급제하여 지금 海南倂가 되어 있다고 한다.²³⁾

자료①②③은 저자의 생존연대와 관련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의 일들을 기술한 것들이라는 점에서 저자의 대략적인 생년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단, 자료①②③ 중에서 자료②의 내용은 자료①③과는 달리 문면에 직접적인 교유의 징후를 내포하고 있지 않으므로 2차적인 자료의 가치밖에는 지니

18) 辛卯春 權伏 以官事 到淸風郡 見安之子天命于酒瓶院 異其爲人 與之同宿 以雨留數日 爲權道之如右 <安尙書傳>

19) 余於己亥之夏 遇洪於宋子恭家 詳聞之 甚異之 遂記之云耳 <洪南原小史>

20) 甲戌秋 加平人 偶於山中見李生 身騎白鹿 手持羽扇而過 其人問曰 李君別來無恙乎 答曰 好在耳 更問所住 不答而去 不見其處 可知其爲仙人也 <李道令傳>

21) 其後 金則魁庭試 歷敬華實 位至政丞 權則廢科下鄉 用力實地 爲世大儒 召命屢降 位至正卿 終不出 尹公推步 可謂神妙矣 <尹尙書小史>

22) 辛巳夏 余以順陵寢郎 入直齋所 與隣近上人會話 座中 有言申君事甚詳者 申君亦曾爲此陵寢官 入直時 與吾輩夜話 ... <申榮傳>

23) 外此異事亦多有之 申果得道於玉岑先生耶 但其得年不長無乃尸解而逝耶 申君又善於堪輿之術 卜葬於家前至近之地而 其子伯周 登第 方爲海南倂云耳 <申榮傳>

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①과 ③은 각각, 名相 孫舜孝의 娶妾談과 출세담, 訛화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孫舜孝傳> 후기의 일부분과 洪南原一之가 만났다는 三才의 이치에 통달한 異人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洪南原小史>의 후기 부분인데, 우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대체적인 이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료①에서 손순효의 외가쪽 자손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盧東萊楊甫는, 1644년(인조 22년, 58세) 무렵에 成川府使, 그리고 1648년(인조 26년)경부터, 표류 漢人의 문제로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켜 삭탈관작당하는 1652년(효종 3년, 66세) 무렵까지 동래부사를 지냈던 인물로서 본명은 盧協, 沒年은 자세치 않으나 1587년(선조 20년)에 태어났다. 그리고 자료③에서 洪이라고 한 인물은 본문의 주인공인 洪南原一之을 말하는 것으로, <中焚傳>에 등장하는 ‘洪命柱一’과 동일 인물이다. 인조 12년(1634년, 30세)에 正言, 인조 15년(1637년)에 持平, 正言, 白川郡守를 거쳐 인조20년(1642년)에 海運判官, 인조 22년(1644년, 41세)에 鳳山縣監, 현종 1년(1660년, 57세)에 南原府使를 각각 역임했으며 벼슬이 修撰, 牧使, 通政에 이르렀다.²⁴⁾ 柱一이 본명이고 一之는 그의 字다. 1604년(선조 37년)에 태어나서 1662년(현종 3년)에 사망하였다.

그런데 자료③을 보면 저자는 洪柱一을 직접 만났다고 증언한다. 또 그가 洪을 만난 해가 己亥年이라고 하였다. 洪柱一의 활동 기간 중에서 己亥년에 해당하는 해는 洪이 사망하기 3년 전인 1659년(효종 10년)이다. 따라서 본서의 저자는 17세기 중반 경에는 벌써, 사회적 신분과 나이가 지긋한 두 사람-1659년 당시 56세의 나이인 洪柱一과 洪보다 다시 17년이 연상이었던 자료①의 盧協과도 이야기 상대가 될 정도의 나이와 사회적 처지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²⁵⁾

24) 본문에서 盧協과 洪柱一을 각각 “盧東萊” 혹은 “洪南原”이라고 호칭한 것으로 보아서 본서의 저작시기는 1660년 이후의 일이 될 것이다.

25) ②에서 언급된 權弼은 1641년에 庭試에 급제하여 군수의 벼슬과 정삼품인 通政의 벼슬을 지냈다. 1599년에 태어나 1667년에 사망하였다. 이로 미루어볼 때 여기서 辛卯라고 말한 것은 1651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단순히 문면의 내용만으로는 본서의 저자가 해당 이야기를 權弼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

한편, 자료④⑤⑥⑦은 本書 저자의 물년과 本書의 편찬연대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선 자료④에서 말한 甲戌年은, 앞의 자료①~③의 내용에서 얻은 결론에 비추어 볼 때 1634년이거나 혹은 1694년을 지칭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자료⑥에서 말한 辛巳年은 역시 같은 이유로 1641년이나 1701년, 둘 중에 하나를 지칭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자료⑤의 내용을 보면 자료④의 甲戌年은 1694년을, 자료⑥의 辛巳年은 1701년을 각각 가리키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러하다. 자료⑤는 尹堦의 知鑑을 얘기한 <尹尙書小史>의 뒷 부분으로, <尹尙書小史>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權尙夏와 金構가 아직 젊었을 적에 推數에 능한 尙書 尹堦가, 친구의 아들들이기도 한, 두 사람의 관상을 봐준 적이 있었다. 尹은 당시 仙術에 심취해 있는 金에게는 ‘부귀상이며 재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반면, 세상을 멀리할 뜻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던 權에게는 오히려 ‘山林之氣가 있으며 재상의 반열에 오를 것’이라고 말하였다. 당시엔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뒤에 과연 그의 말과 같이 되었다.

이 이야기 중의 尹堦는 호조판서를 지낸 인물로 1622년에 태어나 1692년에 사망했다. 權尙夏는 沒年은 알 수 없으나 1643년에 출생했다. 또 金構는 1649년에 출생하여 1704년에 사망하였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뒷 부분인 자료⑤에 보면 ‘其後 金則魁庭試 歷駁華貫 位至政丞’이라고 하였다. 사료에 의하면 金構가 春塘臺榜에 장원 급제한 것이 숙종 8년의 일이므로 위 인용문 중의 ‘魁庭試’는 1682년의 일을 가리킨 것이 된다. 또 인용문에서 ‘位至政丞’이라고 한 것은 金構가 政丞의 벼슬-우의정 벼슬에 나아간 것이 숙종 29년의 일이므로 이것은 1703년 무렵의 일을 가리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서의 집필연대 및 본서 편저자의 물년은 아무리 빨리 잡아도 1703년 이후의 일이라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앞서 제기한 바 있는 자료④와 ⑥에서 언급된 甲戌年과 辛巳年의 연도 또한 각각 1703년에서 보다 가까운 1694년과 1701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인다.

자료⑦의 내용은 이와 같은 추정을 더욱 확실하게 해준다. 먼저 자료의

인지 어떤지 알 수 없다.

성격부터 소개하면 자료⑥과 ⑦은 모두, 자칭 연산조 망명학사 옥잠의 제자라는 申熒의 기이한 사적을 다룬 <申熒傳>의 후기 부분들이다. 그런데 자료⑦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其子伯周 登第 方爲海南倅云耳’라고 한 언급이 보인다. 申伯周는 沒年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1646년에 태어난 인물이다. 文科榜目에 의하면 그가 과거에 급제한 해는 그의 나이 54세에 해당하는 숙종 25년(1699년)의 일이다. 또 府使와 정3품인 僉知의 벼슬을 지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아 여기서 말하는 海南倅(중6품 縣監의 벼슬)라는 관직은 그의 비교적 초기의 관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方爲海南倅云’이라고 한 것은 본서 집필 당시의 시점에서의 현재를 말한 것이므로 자료⑦에서 언급된 시기는 1699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기로 볼 수 있고 본서의 집필연대 또한 1699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기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으로 보아서 본서의 성립연대는 1699년에서 그리 멀지 않은 1703년 이후의 일로, 대략 1704년에서 1710년 사이의 일이 아닐까 추측된다.

한편 필자의 생존연대와 관련하여 앞서 도달했던 결론, 즉 “본서의 저자가 17세기 중반 경에 벌써, 1659년 당시 56세에 다달았던 洪이나, 洪보다 다시 17년이 연상인 盧協과도 친분관계를 맺을 정도의 나이였을 것”이라는 결론 및 지금 도달한 결론, 즉 “본서의 성립연대가 1699년에서 그리 멀지 않은 1703년 이후의 일로, 대략 1704에서 1710년 사이의 일”일 거라는 결론을 서로 비교해보면 본서 저자의 나이는, 1659년에 56세인 홍주일과 교유할 당시의 나이가 25세 전후였다고 가정하더라도 1705년 경에는 벌써 70 전후의 나이에 도달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본서 편저자의 생존연대는 넉넉잡아 1635년 전후에서 1705년 전후까지로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²⁶⁾

그러나 한 가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남아 있다. 그것은 소화 부분 ④번재의 이야기-參判 洪起燮에 관한 이야기의 시기 설정의 문제이다. 參判 洪起燮의 이야기는 洪이 一名妓를 끼고 자다가 臺前別監인 妓夫가 나타나자 기지를 발휘하여 위기를 모면했다는 내용

26) 이 말은 전후 사정으로 볼 때 본서의 편저자가 최소한 1635년에서 1705년까지는 생존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의미이며 그 이상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을 담은 이야기다. 그런데 국립도서관본 <利野耆冊>에서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洪叅判起燮’이라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16세기 이후 참판 벼슬을 역임했음직한 인물로 洪起燮이란 이름을 가진 인물은 1776년에 출생하여 1831년까지 생존하였고 대사간, 대사성, 이조참의, 예모관, 한성부판윤, 형조판서, 예조판서, 대호군 등의 벼슬을 지낸 바 있는 순조 연간의 인물이 유일한 인물이다. 만일 본 이야기 중의 洪起燮이란 인물이 순조 연간의 바로 그 洪起燮이란 인물을 가리킨 것이라고 하면 18세기 초반에 저술된 책 속에 19세기 초엽의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 있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고려대본에서는 ‘洪叅判起燮’이라고 되어 있는 대신 ‘洪叅起燮’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얼핏 보기에는 흔히 있을 수 있는 誤記나 실수로 보일 수도 있으나 문제의 ‘洪叅’을 ‘洪叅判’의 오류로 보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 전혀 상이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칠 때 세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양본 사이에 이와 같은 기록상의 차이가 생겨난 까닭에 대해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설명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국립도서관본의 ‘洪叅判起燮’이란 기록을 맞는 것으로 보고 고려대본의 ‘洪叅起燮’이란 기록을 틀린 것으로 보는 방식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려대본의 ‘洪叅起燮’이란 기록은 轉寫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謄寫者가 실수로 ‘洪叅判起燮’의 ‘判’이란 글자를 빠뜨렸기 때문에 생겨난 표기상의 오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서 제시한 자료①~자료⑦의 언급 내용과, 시기적으로 볼 때 이보다 1세기 정도 뒤진 시기의 내용을 담은 ‘洪叅判起燮’ 이야기 사이의 시대적인 당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또 총 80개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름이 알려진 대부분의 인물들이 모두 17세기 이전의 인물임에 비해 유독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洪叅判起燮’만큼은 19세기의 인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 이 경우,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한 가지뿐이다. 즉, 책을 轉寫할 때 누군가가 ‘洪叅判起燮’의 이야기를 원래의 이야기들 속에 작위적으로 끼워넣었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의문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利野齋冊>은 그 體制面에서 어느 모로 보나 體制가 상당히 정비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책이다. 예컨대 소화류의 이야기와 야담류의 이야기들을 엄격하게 구분해 수록하고 있는 점이라든지 사회적 신분이나 '처지가 비슷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가능한 한 한데 모아놓고 있다든지, 무명씨의 이야기들을 의식적으로 유명씨의 이야기들과 구분하여 수록하고 있는 점이라든지, 가능한 한 비슷한 시기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나열하려고 한 점, 그리고 소화류의 이야기를 따로 수록함에 있어서 그 서두에 멀리는 중국으로부터 가깝게는 16세기말에서 저자가 생존하던 시기에 이르기까지 골계적 인물들을 시간 순으로 일별하고 있는 학구적인 태도 등등... 본서가 풍기는 특징적인 인상은 한결같이 다른 비슷한 종류의 책들과는 달리 어느 정도 그 체계가 정비되어 있는 책이라는 점에 있다고 하겠다. 이런 전후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생각할 때 洪起燮 이야기를,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의 시기와 비슷한 시기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대신, 누군가의 작위적인 의도에 의해서 책의 맨 끝 부분도 아닌 한 중간 지점-전체 60개의 소화 가운데서 40번째의 이야기로 불쑥 끼워넣은 이야기로 간주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문제의 洪起燮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에 나오는 인물들과 비슷한 시기의 인물이라고 했을 때만 그 의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가능한 설명 방식은 '洪叅起燮'을 원본에 보다 근접한 기록으로 보고 '洪叅判起燮'을 잘못된 기록으로 보는 방식이다. 이러한 해석이 옳다면 국립도서관본의 '洪叅判起燮'이란 기록은 본서를 轉寫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오류일 수 있다. 즉, 19세기 이후에 등장한 謄寫者가 그것을 同名異人인 순조 때의 유명인물 洪起燮의 이름과 혼동하였거나 착각함으로써 이와 같은 결과에 도달했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洪叅起燮'의 '叅'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해지는 난점이 있다. 이 경우,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叅'이 洪起燮의 字나 號일 가능성과 관직을 의미할 가능성이라 하겠다.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되었든 한 글자가 누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字나 號에 '叅'을 쓰는 일이 흔치 않은 일이므로 '叅'이 관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叅判(從二品)이나 叅議(正三品 堂上), 叅知(正

三品 堂上), 叅奉(從九品)과 같은 관직명이 물망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실록이나 文科榜目 그 어느 곳에도 이 시기에 叅判, 叅議, 叅知를 지낸 자로서 洪起燮이란 이름을 가진 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叅’이 叅判, 叅議, 叅知의 誤記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적으로 남은 가능성은 叅奉이다. 그렇다면 국립도서관본에서 ‘洪叅判起燮’이라고 한 것과 고려대본에서 ‘洪叅起燮’이라고 한 것은 혹시 ‘洪叅奉起燮’의 오류는 아닐까? 그러나 이 문제는 이것 저것 오자와 오류가 많은 양본의 비교만으로는 선뜻 단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인다. 차후 원본에 보다 가까운 이본이 발견되어야 명백한 시비가 가려질 수 있을 것이다.

4. 編著者の 交友關係 및 身分

위에 얘기한 바와 같은 생몰연대를 가진 <利野耆冊>의 편저자가 과연 어떤 인물이고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다만 앞서 제시한 後記 자료들을 분석함으로써 뭔가 의미있는 결과에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그런 속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분명한 작중 언급은 자료⑥의 ‘辛巳夏 余以順陵寢郎 入直齋所’라고 한 편자의 언급이다. 여기서 말하는 順陵은 경기도 坡州에 있는 成宗妃의 陵을 지칭함인데 저자는 자신이 辛巳年에 이 陵의 寢郎이었다고 증언한다. 辛巳年은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숙종 27년-1701년을 말한다. 그렇다면 본서의 편자는 대략 1701년, 육순을 훨씬 넘긴 나이에 順陵寢郎의 벼슬을 지내고 있었던 것이 된다. 寢郎은 조선조 당시 宗廟나 陵, 園의 일을 맡아보는 관원을 그 품계에 관계없이 두루 지칭하던 말이다. 조선조의 관제를 살펴보면 陵의 중요도에 따라 소속 관원들의 수와 품계에 다소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문제의 順陵에는 종7품인 直長 1員과 종9품인 叅奉 1員 등 2員の 관료만을 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보면 本書의 저자는 辛巳年-1701년 현재, 參下의 벼슬-종7품 혹은 종9품의 낮은 품계의 하급관리급의 신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그의 사회적 신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가능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그의 사회적 처지와 신분을 보다 자세히 가능하기 위해 앞 자료들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의 교유의 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불망에 떠오를 수 있는 인물들로는, 자료①의 盧東萊 楊甫와 자료②의 權弼, 자료③의 洪柱一과 宋子恭과 같은 인물들이 있다.²⁷⁾ 앞서서도 자세히 밝혔듯 자료①의 盧東萊 楊甫는 1587년생으로 동래부사(종3품)에 제직 중이던 1652년 무렵 환갑을 훨씬 넘긴 66세에 달한 인물이었다. 그와 같이 상당한 신분과 적지 않은 연령의 인물에게서 자신의 가계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들을 정도라면 최소한 그 가계나 학식, 사회적 처지가 그와 등등한 수준에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원종 1년(1660년)에 57세의 나이로 남원부사(종3품)를 지낸 바 있는 자료③의 洪柱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편 자료②의 權弼은 겉으로 드러난 문면을 통해서도 편저자와의 구체적인 친분이나 교유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런데 편저자는 처음 등장하는 權弼이란 인물에 관하여 아무런 부대 설명도 주지 않은 채 그냥 그 이름만 지명한 후 곧 바로 그가 ‘공무차 청풍군에 갔을 때의 일이라고만 언급한다. 이와 같은 태도는 盧協을 ‘盧東萊 楊甫’로 칭한다든지 洪柱一을 ‘洪南原一之’ 내지는 ‘洪令柱一’로 소개하는 것과는 차이가 난다. 인물을 소개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記述上의 차이가 생겨난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우선 權弼의 이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權弼은 1599년에 태어나 1667년에 사망하였다. 1641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郡守와 通政(정3품 당상관)의 벼슬을 지냈다. 그러나 문과방목에 보면 그는 庶子 출신으로 되어 있다. 李恒福의 庶女와 혼인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출신 성분에 관계없이 일찍부터 그 재주를 널리 인정받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아무튼 본서의 편저자가 그를 소개할 때 아무런 설명도 없이 權弼이라고만 한 것은 그가 다른 인물들과는 달리 서얼 신분이었기 때문이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그는 權弼을 다른 인물들과 차별적으로 다름으로써 은연중에 자신의 신분이나 처지가 서얼들과는 그 격이 다름을 과시하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27) 다만, 본문 중의 宋子恭만큼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조사하지 못하였다.

5. 맺음말

이상의 논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립도서관본 <利野耆冊>과 고려대본 <利野耆冊>은 그 전체 話數나 내용면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교적 원본에 충실한 轉寫本이란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양본은 體制面에서 상당히 큰 차이점을 보인다. 국립도서관본은 후대의 轉寫者가 함부로 조작하기 어려운 '이야기의 시대별·인물별 배치 後, 필요에 따라 補遺項 첨가'라는 엄격한 편집 원리 아래 편술된 本이다. 그런 의미에서 體制가 상당히 흐트러져 있는 고려대본에 비하여 훨씬 원본의 모습에 가까운 이본으로 판단된다. 다만 야담류 이야기에 붙은 제목 문체에 있어서만큼은 국립도서관본보다는 고려대본이 원형에 훨씬 가까운 모습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국립도서관본의 '小史'가 붙은 제목이나 기타 '傳'의 이름을 갖지 않은 제목들은 후대의 轉寫者가 인위적으로 첨가한 제목일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다.

한편 <利野耆冊>의 편저자는 사대부 출신으로 노년에 順陵寢郎의 관직을 지냈던 인물이며 17세기 초·중엽(1630년~1640년 무렵)에 태어나서 18세기 초까지 생존했던 인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본서의 성립연대는 편저자의 말년에 해당하는 18세기초-1704년~1710년 사이의 일로 판단된다

참고 문헌

- <利野耆冊>, 國立圖書館本
<利野耆冊>, 高麗大本
<古今笑叢>, 民俗學資料刊行會編, 1958.
<破閑集/補閑集/樸翁稗說>, 李相寶 譯, 韓國名著大全集, 大洋書齋, 1972.
<朝鮮王朝實錄>, 國史編纂委員會刊, 探求堂, 1977.
<李朝實錄難解語辭典>, 사회과학원, 한국문화사, 1993.
<韓國故事大典>, 金舜東, 回想社, 1965.
<國朝文科榜目>, 太學社, 198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韓國人名字號辭典>, 啓明文化社, 1988.
<人名事典>, 載東文化社, 1977.

Abstract

The Study of "利野耆冊(Yi Ya Ki Chaek)"
-On the characteristics of two unoriginal "Yi Ya Ki Chaek"s
and the writing year of "Yi Ya Ki Chaek"-

Kim Young-Joon

"Yi Ya Ki Chaek" is a storybook of the Lee Dynasty which has not been introduced widely and completely in the academic field of Korea. It is a book containing 60 farces of the 17th century most of which are not widely known to us and is considered a very important book for a further study of the farces. In other words, "Yi Ya Ki Chaek" has a great historic meaning and value in that it widened the scopes of the material of the farces of the Lee Dynasty being studied in the academic field now. Also it will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the changing processes of the individual farces.

This study has a characteristic of the preliminary study for the systematic and concrete study of "Yi Ya Ki Chaek". It is focused first on the system and genre of the book,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two unoriginal "Yi Ya Ki Chaek"s left today, and third the social status of the author and the year he wrote the book.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re are two unoriginal "Yi Ya Ki Chaek"s left today. One is the book kept in the National Public Library and the other is kept in Korea University Library. Comparing these two books,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in contents and thickness of the books, but considerable difference in the system and structure of them.

The book kept in the National Public Library was written under the strict rule of editing that the stories would be first arranged chronologically and personally and could next, if necessary, supplemented which was hard for the man copying the storybook later to change at random. In that sense, the book kept in the National Public Library is much closer to the original book than the book kept in Korea University Library which is scattered in the structure and system of the book.

In the case of the titles attached to the stories of the books, the titles of the book kept in Korea University Library are probably much closer to the original than those of the book kept in the National Public Library. Additionally, the titles like "小史(So-Sa)" and not having "傳(Jeon)" in the book kept in the National Public Library are probably those which people copying the book later changed personally and artificially.

The author of "Yi Ya Ki Chaek" was born in the early or middle 17th century (about 1630-1640) and died in the early 18th century. He was from the upper Yang-Ban class of the Lee Dynasty and a governmental officer. He is considered to have written "Yi Ya Ki Chaek" in the early 18th century (about 1704-1710) a little bit before he died.